

대구·경북지역 성인의 약선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효정¹ · 임미경² · 김미라^{3*}

¹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 인간환경복지연구소, ²경운대학교 한방자원학부,
³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Intake Behavior of *Yaksun* of Adul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Hyochung Kim¹, Mee Kyoung Lim² and Meera Kim^{3*}

¹Dept.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The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al Welfare,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Korea

²School of Herb Medicine Resource, Kyungwoon University, Gumi 730-739, Korea

³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 and awareness of *yaksun* and willingness to eat *yaksun* in the future,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intake behavior of *yaksun* of adul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data were collected in April, 2011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hi-square test, t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V.1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lmost sixty-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knew *yaksun*. The perception level of *yaksun* for the intake respon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on-intake respondents. Additionally, many respondents agreed to varied menu development and convenient-food development of *yaksun*. Intake respondents showed higher level of agreement for the varied menu development of *yaksun* than non-intake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four fifths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eat *yaksun* in the future. The level of willingness to eat *yaksun* in the future for the intake respon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on-intake respondents. Additionally, the respondents who knew *yaksun* showed higher level of willingness to eat it than those who did not know it. Finally, the result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intake behavior of *yaksun* showed that gender, educational level, and the awareness of *yaksun* were significant.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not only the promotion of *yaksun* to consumer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convenient foods, varied menus for different age groups, and menus with cheap prices are needed to raise *yaksun* popularity.

Key words : *Yaksun*, intake behavior, adults.

서론

육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음식의 과잉 섭취 등으로 각종 성인병의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증진 시켜주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선(藥膳)은 약재를 넣어 건강을 위한 기능을 살린 약이 되는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과 식품의 근원을 동일하게 본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동양전통의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Kim TH 2002). 중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약선을 이용하여 왔는데, 약선을 통해 음식과 한약재를 모두 섭취함으로써 몸에 영양을 주고 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얻고자 하였다. 약선은 특정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

독, 면역력 증진, 항상성 유지 등 생체 내의 생리활성을 증진 시켜 건강하게 장수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Choi *et al* 2009).

약선은 약재의 배합, 식품재료가 가진 성질과의 조합, 조리법 등에 의해 각 개인에게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약선의 특징을 보면 첫째, 약선은 음식의 특징과 병의 예방치료 작용, 몸에 대한 영양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즉, 한약의 약성과 작용, 음식의 색상과 맛, 향기가 보존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약선은 한의학 이론에 기초하여 치료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약선은 음식에 들어가는 한약의 효능, 음식의 특성, 먹는 사람의 체질, 요리방법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지므로 약선 처방은 질병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음식재료의 재질에 맞게 조성하고, 적합한 조리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 Hwang 2006). 약선의 효능으로는 항균성 등으로 인한 질병 예방작용, 장부나 기혈

* Corresponding author : Meera Kim, Tel: +82-53-950-6233, Fax: +82-53-950-6229, E-mail: meerak@knu.ac.kr

의 자양기능, 장부의 기능을 보함으로써 노화 방지 작용, 허하거나 기능 저하로 인한 질병의 치료 작용을 들 수 있다 (Park *et al* 2008).

약선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한국 약선 인지도 및 교육 활성화에 대한 Cho SK (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요리 경력이 많을수록 약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과 요리 경력이 적은 사람들도 약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약선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쉽고, 실용적인 조리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Sim KH (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약선 인지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요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약선 재료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재료의 위생과 품질 관리, 유통과 판매, 홍보 등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약선요리 메뉴 선택 속성과 고객 인지도에 관해 살펴본 Kim JM (2007)의 연구에서는 약선 메뉴 선택 속성에 대한 요인으로 자연친화 관련 요인, 맛 및 영양 관련 요인, 가격 및 음식 관련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약선 메뉴의 대중화를 위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방 전문 레스토랑의 증가와 사상의학에 입각하여 고객 체질에 맞는 약선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약선을 보급하고 대중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약선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약선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선의 대중화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약선 섭취 경험 여부 및 약선 인지 여부에 따라 약선에 대한 인식도,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 향후 약선 섭취 의사 등에 대해 비교하고, 약선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011년 4월에 편의표집법을 이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26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Choi *et al* 2007, Choi SW 2011, Do KB 2003, Kim GY 2008, Sim KH 2011)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가계 소득, 결혼 상태 등 일반적인 특성, 약선 섭취 경험 여부, 약선에 대한 인지도, 약선에 대한 인식도,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 향후 약선 섭취 의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약선에 대한 인지도

약선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약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알고 있다’와 ‘모른다’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2) 약선에 대한 인식도

‘약선은 건강식(웰빙식)이라고 생각한다’, ‘약선은 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6개의 문항을 통해 약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약선에 대한 인식도의 하위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는 총 2개의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약선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과 약선을 편의식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도를 ‘전혀 좋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좋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통해 질의하였다.

4) 향후 약선 섭취 의도

앞으로 약선을 어느 정도 섭취할 것인지를 통해 향후 약선 섭취 의도를 측정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섭취할 것이다’,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5)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가 0.71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 V.1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약선에 대한 인식도 문항에 관한 하위영역 분류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약선에 대한 인식도 문항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문항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약선 섭취 경험 여부 및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χ^2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약선 섭취 유무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4.2%, 여성이 55.8% 표집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34.2%), 20대(27.9%), 30대(23.8%) 순이었다. 전문대졸 이상의 응답자는 71.4%이었으며, 월가계 소득은 300만~400만 원 미만(27.1%), 200만~300만 원 미만(25.3%), 400만 원 이상(24.9%) 순이었다. 그리고 기혼자의 비율은 65.1%이었다. 한편, 약선의 섭취 경험 여부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약선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8%가 약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4.2%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Cho SK(2010)의 연구에서는 약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0%이었고, Lee &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약선 음식에 대해 ‘보통 이상’의 인지도 비율이 70.6%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비해 약선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2. 약선에 대한 인식도의 하위영역 분류

약선에 대한 인식도의 하위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0.50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병 예방·치료 인식과 건강식 인식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에 대한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인식은 0.78, 건강식 인식은 0.81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나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약선 섭취 경험 여부 및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비교

1) 약선 섭취 경험 여부 및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섭취자가 많았으며($p < 0.01$), 연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19	44.2
	Female	150	55.8
Age	20~29 years old	75	27.9
	30~39 years old	64	23.8
	40~49 years old	92	34.2
	50 years old and over	38	14.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and below	77	28.6
	Beyond high school graduate	192	71.4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Under 2,000,000	61	22.7
	2,000,000~less than 3,000,000	68	25.3
	3,000,000~less than 4,000,000	73	27.1
	4,000,000 and over	67	24.9
Marital status	Married	175	65.1
	Others	94	34.9
Intake of <i>yaksun</i>	Intake	170	63.2
	Non-intake	99	36.8
Awareness of <i>yaksun</i>	Know	177	65.8
	Do not know	92	34.2
Total		269	100.0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perception of *yaksun*

Variable	Question	1	2	h ²
Perception as disease prevention and cure	I think <i>yaksun</i> can prevent disease.	0.79	0.36	0.76
	I think <i>yaksun</i> can cure disease.	0.87	0.06	0.76
	I think <i>yaksun</i> has an effect on antiaging and longevity.	0.77	0.31	0.69
Perception as healthy food	I think <i>yaksun</i> is healthy food (well-being food).	0.05	0.90	0.81
	I think <i>yaksun</i> can enhance stamina.	0.35	0.76	0.70
	I think <i>yaksun</i> is superior to other foods in nutrition.	0.35	0.71	0.63
Variance(%)		37.14	35.28	
Cumulative variance(%)		37.14	72.42	
Cronbach's α		0.78	0.81	

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가($p < 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p < 0.01$),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p < 0.01$)인 경우 약선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약선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연령($p < 0.001$), 학력($p < 0.05$), 월가계 소득($p < 0.05$), 결혼상태($p < 0.01$)에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ccording to intake and awareness of *yaksun* N(%)

Variable	Category	Total	Intake/non-intake		χ^2 value	Awareness of <i>yaksun</i>		χ^2 value
			Intake respondents	Non-intake respondents		Know <i>yaksun</i>	Do not know <i>yaksun</i>	
Gender	Male	119(44.2)	65(38.2)	54(54.5)	6.75**	75(42.4)	44(47.8)	0.73
	Female	150(55.8)	105(61.8)	45(45.5)		102(57.6)	48(52.2)	
Age	20~29 years old	75(27.9)	41(24.1)	34(34.3)	11.82**	42(23.7)	33(35.9)	20.72***
	30~39 years old	64(23.8)	34(20.0)	30(30.3)		32(18.1)	32(34.8)	
	40~49 years old	92(34.2)	70(41.2)	22(22.2)		73(41.2)	19(20.7)	
	50 years old and over	38(14.1)	25(14.7)	13(13.1)		30(16.9)	8(8.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and below	77(28.6)	61(35.9)	16(16.2)	11.91**	58(32.8)	19(20.7)	4.35*
	Beyond high school graduate	192(71.4)	109(64.1)	83(83.8)		119(67.2)	73(79.3)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Under 2,000,000	61(22.7)	34(20.0)	27(27.3)	3.55	32(18.1)	29(31.5)	8.42*
	2,000,000~less than 3,000,000	68(25.3)	42(24.7)	26(26.3)		50(28.2)	18(19.6)	
	3,000,000~less than 4,000,000	73(27.1)	52(30.6)	21(21.2)		53(29.9)	20(21.7)	
	4,000,000 and over	67(24.9)	42(24.7)	25(25.3)		42(23.7)	25(27.2)	
Marital status	Married	175(65.1)	123(72.4)	52(52.5)	10.82**	127(71.8)	48(52.2)	10.21**
	Others	94(34.9)	47(27.6)	47(47.5)		50(28.2)	44(47.8)	
Total		269(100.0)	170(100.0)	99(100.0)		177(100.0)	92(100.0)	

* $p<0.05$, ** $p<0.01$, *** $p<0.001$.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응답자가,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응답자가, 월가계 소득이 300~400만 원 미만, 그리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 약선 인지도가 높았다. Cho SK(2010)의 연구에서도 3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의 약선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젊은 층의 경우 약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젊은 연령층도 약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입맛이 반영된 약선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약선에 대한 인지도 비교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의 약선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보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선 비섭취자에 비해 약선 섭취자의 경우 약선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약선 섭취자 중 약선을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도 21.2%를 차지하고 있어 약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서 삼계탕이나 한방오리고기 등의 약선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약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약선에 대한 인식도 비교

약선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인식에

Table 4. Comparison of intake respondents with non-intake respondents for awareness of *yaksun* N(%)

Category	Intake respondents	Non-intake respondents	Total	χ^2 value
Know <i>yaksun</i>	134(78.8)	43(43.4)	177(65.8)	34.82***
Do not know <i>yaksun</i>	36(21.2)	56(56.6)	92(34.2)	
Total	170(100.0)	99(100.0)	269(100.0)	

*** $p<0.001$.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3.27점, 건강식 인식은 3.79점으로 많은 응답자들은 약선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Lee & Hwang(2006)의 연구에서 약선을 영양가가 많고 성인병 예방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Lee & Lee(2009)의 연구에서도 조사자의 52.6%가 약선의 '건강 유익성은 좋다'라고 응답하였고,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약선을 '질병 예방에 좋다고 생각한다'와 '심신을 편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Cho SK(2010)의 연구에서도 약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가 5점 만점에 4.22점으로, 약선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약선을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인식에서는 ‘약선은 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선은 노화 방지나 장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3.45점, 3.43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약선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은 2.8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약선을 약처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건강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건강식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약선은 건강식(웰빙식)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평균값이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간에 약선에 대한 인식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약선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와 약선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 간에는 약선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인식하거나, 약선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에 대한 인식도의 각 세부 문항에 있어서도 약선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

약선의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를 질의한 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3.84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선 비섭취자에 비해 약선 섭취자의 경우 약선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약선 섭취자들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약선보다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선 비섭취자의 경우에도 약선의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입맛에 맞는 약선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약선을 섭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약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Kim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약선 메뉴 품질이 고객만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선 메뉴 품질의 치료성, 영양성 순으로 고객만족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Lee & Lee 2009)에서 20대 소비층이 ‘약선 메뉴의 다양성’과 ‘질병 예방’ 등 체질에 따른 조

Table 5. Perception of *yaksun*, varied menu development, and convenient-food developmen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intake and awareness of *yaksun*

Variable	Total (N=269)	Intake/non-intake			Awareness of <i>yaksun</i>		
		Intake respon- dents (N=170)	Non-intake respon- dents (N=99)	<i>t</i> value	Know <i>yaksun</i> (N=177)	Do not know <i>yaksun</i> (N=92)	<i>t</i> value
Peception of <i>yaksun</i> as disease prevention and cure ¹⁾	3.27±0.71	3.28±0.72	3.26±0.69	0.28	3.33±0.68	3.16±0.75	1.85
I think <i>yaksun</i> can prevent disease.	3.45±0.86	3.49±0.84	3.39±0.90	0.85	3.51±0.85	3.35±0.88	1.44
I think <i>yaksun</i> can cure disease.	2.89±0.95	2.91±0.99	2.87±0.89	1.32	2.97±0.94	2.75±0.97	1.75
I think <i>yaksun</i> has an effect on antiaging and longevity.	3.43±0.82	3.47±0.81	3.37±0.85	0.92	3.50±0.75	3.30±0.95	1.88
Perception of <i>yaksun</i> as healthy food ¹⁾	3.79±0.61	3.81±0.57	3.75±0.67	0.79	3.82±0.87	3.72±0.67	1.20
I think <i>yaksun</i> is healthy food(well-being food).	3.84±0.77	3.85±0.74	3.81±0.83	0.45	3.88±0.76	3.75±0.79	1.33
I think <i>yaksun</i> can enhance stamina.	3.77±0.71	3.81±0.69	3.72±0.74	0.97	3.81±0.69	3.70±0.75	1.26
I think <i>yaksun</i> is superior to other foods in nutrition.	3.75±0.70	3.76±0.63	3.72±0.82	0.50	3.76±0.63	3.72±0.83	0.50
Perception of varied menu development ¹⁾	3.84±0.78	3.91±0.73	3.71±0.86	2.01*	3.89±0.71	3.73±0.90	1.64
Perception of convenient-food development ¹⁾	3.58±0.97	3.52±0.99	3.68±0.93	-1.32	3.55±0.97	3.63±0.97	-0.66

* $p<0.05$.

Values are mean±S.D.

¹⁾ Rated with a 5-point scale: 1=Never and 5=Highly.

리법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낸 결과를 고려할 때, 젊은 연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약선 메뉴 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약선을 편의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평균값은 3.58점으로 편의식 개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에 이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약선 메뉴 다양화 및 편의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약선을 알고 있는 응답자와 약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약선 섭취 의사

향후 약선을 섭취할 것인지 질의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81.0%가 향후에 약선을 섭취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01$), 약선 섭취자의 경우 응답자의 98.8%가 향후 약선을 섭취할 의사가 있었으나, 약선 비섭취자의 경우에는 향후 약선을 섭취하겠다는 비율이 50.5%, 섭취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49.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선 섭취자의 경우 이들이 섭취했던 약선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식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외식성향에 따른 약선 음식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o & Kim(2010)의 연구에서도 약선에 대한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 재구매 의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약선을 추천할 의향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약선 섭취자가 향후 다시 약선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약선의 재섭취를 위해서는 약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약선 섭취 의사에 있어서는 약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와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약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88.1%가, 그리고 약선을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67.4%가 향후에 약선을 섭취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001$). 이는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이미 약선의 효능이나 기능 등에 대해 알고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에 비해 향후에도 약선을 섭취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약선의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지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Park *et al* 2008)에서는 약선이 건강에 유익한 점을 설득력 있게 고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과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에게 약선 식당의 성과에 대한 정보전달을 하고, 가격에 부담이 덜 되는 약선 메뉴를 통해 약선 식당의 기능 및 효익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향후 약선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약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6) 건강에 대한 관심도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3.13점으로 보통 정도 수준이었다(Table 7). 문항별로는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 평균값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관련 방송을 꼭 시청한다’의 평균값은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약선 섭취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3.19점, 약선 비섭취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3.03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는 약선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에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다’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약선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 인지 여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약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응답자보다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5$). 또한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와 약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응답

Table 6. Willingness to eat *yaksun* in the future of respondents according to intake and awareness of *yaksun* N(%)

Category	Total	Intake/non-intake			Awareness of <i>yaksun</i>		
		Intake respondents	Non-intake respondents	χ^2 value	Know <i>yaksun</i>	Do not know <i>yaksun</i>	χ^2 value
Willing to eat	218(81.0)	168(98.8)	50(50.5)	95.07***	156(88.1)	62(67.4)	16.95***
Not willing to eat	51(19.0)	2(1.2)	49(49.5)		21(11.9)	30(32.6)	
Total	269(100.0)	170(100.0)	99(100.0)		177(100.0)	92(100.0)	

*** $p<0.001$.

Table 7. Concern about health of respondents according to intake and awareness of *yaksun*

Question ¹⁾	Total (N=269)	Intake/non-intake			Awareness of <i>yaksun</i>		
		Intake respondents (N=170)	Non-intake respondents (N=99)	<i>t</i> value	Know <i>yaksun</i> (N=177)	Do not know <i>yaksun</i> (N=92)	<i>t</i> value
I always watch TV programs related to health.	2.79±0.90	2.84±0.91	2.72±0.88	1.05	2.88±0.91	2.65±0.87	1.87
I have regular checkups.	3.03±1.09	3.10±2.90	2.90±1.16	1.42	3.08±1.09	2.91±1.11	1.22
I take exercise for keeping my health.	3.30±1.00	3.28±0.92	3.32±1.12	-0.31	3.33±0.97	3.23±1.05	0.80
I take health food(ex: red ginseng, ginseng, glucosamin, aloe).	2.97±1.09	3.14±1.03	2.70±1.16	3.12**	3.08±1.05	2.76±1.15	2.32*
I am concerned with health.	3.57±0.82	3.61±0.79	3.49±0.87	1.03	3.65±0.80	3.40±0.85	2.31*
Total	3.13±0.67	3.19±0.63	3.03±0.72	1.90	3.20±0.66	2.99±0.67	2.47*

p*<0.05, *p*<0.01.

Values are mean±S.D.

¹⁾ Rated with a 5-point scale: 1=Never and 5=Highly.

자 간에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다(*p*<0.05)’와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p*<0.05)’ 문항에서 차이를 보여, 약선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에 비해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건강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별, 학력, 약선에 대한 인지도로 나타났다(Table 8).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그리고 약선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 비해 알고 있는 경우 약선의 섭취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0.76 + 0.77(\text{여성}) + 0.76(\text{전문대졸 이상}) + 1.48(\text{약선에 대해 알고 있음})$$

Kappor S(1988)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식의 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메뉴에 대한 선택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Lee & Hwang(2006)의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방음식에 대한 신뢰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성별이 약선 섭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선에 대한 인지도가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선의 종류,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

Table 8. Result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Wald	Exp(b)
Gender			
Male	Ref. ¹⁾	-	-
Female	0.77	6.06	2.16*
Age	-0.01		0.99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and below	Ref.	-	-
Beyond high school graduate	0.76	3.87	2.14*
Marriage status			
Married	Ref.	-	-
Others	-0.85	3.42	0.43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000,000	Ref.	-	-
2,000,000 ~ less than 3,000,000	-0.04	0.01	0.96
3,000,000 ~ less than 4,000,000	0.35	0.67	1.42
4,000,00 and over	-0.01	0.01	1.00
Awareness about Yaksun			
Know	1.48	23.55	4.38*
Do not know	Ref.	-	-
Perception of Yaksun			
Preception of Yaksun as disease prevention and cure	-0.32	1.49	0.72
Preception of Yaksun as healthy food	0.18	0.36	1.19
Concern about health	0.23	0.80	1.26
Constant		-0.76	
Model chi-square		57.20***	
Predicted correctly(%)		71.70	

p*<0.05, **p*<0.001.

¹⁾ Ref. means a reference group in the dummy variable of binary logic regression analysis.

못하고 막연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약선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급하고, 건강식으로서의 약선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약선의 대중화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약선 섭취 경험 여부 및 약선 인지 여부에 따라 약선에 대한 인식도, 약선 개발에 대한 인식도, 향후 약선 섭취 의사 등에 대해 비교하고, 약선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선의 섭취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인 경우 약선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약선 비섭취자에 비해 약선 섭취자의 경우 약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약선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선 섭취자의 경우 약선 비섭취자에 비해, 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알지 못하는 응답자에 비해 향후 약선을 섭취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별, 학력, 약선에 대한 인지도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약선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지도가 약선 섭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이 약선을 질병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약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선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식으로서 약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편의성, 연령에 맞는 다양한 약선 메뉴, 비싸지 않은 약선 메뉴 등의 개발을 통해 약선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헌

Cho SH, Kim HK (2010) The influence of according to healthy tendency on propensity of the eating out customer's herbal food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3: 115-135.

Cho SK (2010) Recognition of Korean Yaksun cuisine and further education according to lifestyle.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pp 20-21.

Choi SW (2011) The effect of purchase motivation and selec-

tive attributes of medicinal food on the customer attitude. *Ph 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pp 123-127.

Choi W, Ko JY, Park HJ (2007) A study on differences of functional food choice attributes by segmented groups of welling interes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9: 104-119.

Choi W, Park HJ, Park IS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value on satisfaction and loyalty in yaksun cuisin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2: 149-169.

Do KB (2003) The study on the customer's perception of Han-Bang menu. *M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pp 46-59.

Kappor S (1988) Young adults interest in nutritious foods. *FIU Hospitality* 6: 31-38.

Kim GY (2008) The effect of the property for selection of medical cuisine menu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intention for re-buy. *M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pp 83-86.

Kim JM (2007) Research on the menu selecting attribute of medicinal cuisine and customers' recognition: Centering around the users of medicinal cuisine restaurant in Busan. *M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pp 5-23.

Kim KH, Park JY, Oh YS (2012)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herbal menu quality,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7: 1-16.

Kim TH (2002) Family restaurant patrons' attitudes toward nutrition & healthy menus. *Korean J Food Culture* 17: 629-637.

Lee SM, Hwang DK (2006) Acknowledgement of herbal foods in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6: 65-73.

Lee YD, Lee YJ (2009) A study on the food behavior,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the herbal cuisine.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5: 35-51.

Park HJ, Lee SG, Choi W (2008) Yaksun food perceived risk factors affecting on repurchase inten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10: 170-182.

Sim KH (2011)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Korean herbal foods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 in lifestyl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7: 39-58.